

# 민주 당권주자 영남 표심잡기 3인 3색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2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섬유·자율주행차 산업 정책 지원... 위기 극복 적임”  
김부겸 “영남권 지지율 상승 견인... 임기 채워 재집권 선봉”  
박주민 “사회 바뀌는 과감한 개혁 추진... 전환의 시대 열겠다”

### 주말 PK·TK 대의원대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주말과 휴일인 1~2일 대구·경북(TK)에서 열린 경쟁을 펼쳤다. 특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정당대회 분위기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당권주자들은 앞다퉈 TK를 겨냥한 공약을 쏟아냈다. 이들 당권주자들은 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놓고도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구·경북은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부터 돕겠다”며 “섬유 등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등 미래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지원하겠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을 야심적으로 키우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경북과 제 고향 광주·전남은 정치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데, 정치 지역구도의 벽을 우리 세대에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겸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 자체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에 비롯한 취약지역의 당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출신으로 대구 수성갑 지역구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9년간 네 번 출마해 세 번 떨어졌지만, 한 번 승리야말로 당원 동지의 피땀과 눈물의 결정체”라며 지역 연고를 어필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2년 당 대표 임기를 채우며 재집권의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후보는 “대구·경북 청년당원들을 만났는데, 민주당이 잘해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이 어깨에 힘을 넣고 다닌다고 하더라”라며 “여러분 어깨와 심장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미국이 대공황 당시 추진했던 뉴딜 정책을 거론하며 “새 사회를 꿈꾸는 모든 세력의 동지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6석을 가지고도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정당이 누가 또 투표하고 싶겠나”라며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당권주자들은 지난 1일 부산

·울산·경남 대의원대회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놓고 충돌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8월 1일부터 열리는 국회 낙 달을 잘해야 문재인 정부가 최종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는 점도 내세웠다. 김부겸 후보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위기의 정점은 내년 재보선인데, 예고된 위기 앞에서 당 대표가 사임하는 것은 큰 태풍 앞에서 선장이 배에서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후보는 “민주당 176석에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라며 “이 의석을 갖고도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에서) 우리에게 또 표를 주고 싶겠나”라고 되물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세종시에 국회 완전 이전·靑 제2집무실 검토

### 與 행정수도 이전 TF, 오늘 현장 부지 방문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할 태세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매듭지어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옮겨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세종의 사당 설계유역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단장인 우원식의 원, 부단장인 박범계 의원 등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은 이어 세종시에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현장을 둘러보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내에서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분회의장 설치 설계까지 용역에 반영, 행정수도 이전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종의 사당 및 청와대 제2집무실 후보지 면적이 국회와 청와대를 전부 옮기는 게 가능한 규모”라며 “분회의장 설치 등까지 미리 염

두에 두고 설계안을 우선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미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 20억원이 확보돼있는 만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설계 용역 발주와 관련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행정수도를 ‘서울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9%,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2%로 집계됐다고 밝

혔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호남권만 ‘찬성’ 응답이 더 많았고 나머지 지역은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서울은 61%가 반대, 32%가 찬성했다. 인천·경기는 53%가 반대, 38%가 찬성했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57%, 반대 36%였다. 광주·전라 지역은 찬성 67% 반대 21%였다.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해 묻는 결과, 국회 이전에는 찬성이 47%로 반대 39%보다 높았다. 청와대 세종시 이전은 찬성(38%)보다 반대(48%)가 많았고, 서울대 이전도 찬성(30%)보다 반대(54%)가 우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우선 국회 이전을 추진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막말은 안돼” 통합당 대역전락 고심

### 지도부, 필리버스터 활용 방안 등 거론

미래통합당이 대역 투쟁 전략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인사청문회부터 부동산 입법까지 번번이 수적 열세에 무릎을 꿇자, 이제 노선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냐는 주장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여권의 완력 행사가 거세질수록 당내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도부는 일단 ‘원내 투쟁’에 주력할 방침이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을 주목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대책 없는 야당의 모습이 아닌, 논리적으로 공감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단식·삭발은 이미 실패를 맛보지 않았다”라며 “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여야 지도부 ‘휴가 활용법’

### 민주·정의·국민의당 국내서 피서... 통합당, 전문가 간담회

부동산 입법과 인사청문회를 놓고 달아나려던 21대 국회가 냉각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내려놓고 이달 둘째 주 중 2~3일 동안 국내에서 가족과 휴식할 계획이다. 여야 지도부도 이맘때를 전후해 여름휴가를 보내는 게 보통이지만, 올해는 국회의 권력 지형만큼이나 양상이 다르다. 176석의 완력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잠시 휴가를 건너뛰고 3법을 상정 이틀만에 처리하는 등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인 만큼, 숨을 고르고 재충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9일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세종 자택으로 내려갔

다. 이후 가족과 함께 전남 여수 등지에서 휴가를 보냈다. 이 대표는 2일 저녁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로 업무에 복귀, 이번주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대책을 점검한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휴가를 반납했다. 민주당의 ‘독주’에 번번이 무릎 꿇지 못한 무가력한 모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당의 전략·전술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29일 일주일 휴가를 떠났다. /연합뉴스

## 여야, 말꼬리잡기 소모전

### 박범계 ‘이상한 억양’ 발언에 통합당 ‘특정 지역 폄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인상적인 연설로 주목받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을 두고 1일 “이미지 가공”이라고 저격했다. 또 “그쪽당은 이상한 억양을 쓴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다주택자의 지역 폄하”라며 박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을 겨냥, “임차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에 따르면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며 “소위 오리다리날은 아닌데 마치 평생 임차인으로 산 듯 호소하며 이미지 가공하는 것은 좀...”이라고 적었다. 자신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된다”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비판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일단 의사당에서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으며 조리 있게 말한 것은 그쪽(통합당)에서

는 귀한 사례이니 평가를 한다”면서 “임대인이 그리 쉽게 거역의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바꿀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통합당은 박 의원의 ‘이상한 억양’ 표현을 두고 지역 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통합당에 경성도 사투리를 쓰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마치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듯 들린다. 아니면 특정인을 폄하하는 것인지”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편 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임차인끼리 또 편을 가르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이 너무 빠른 때리는 연설을 했는지 박 의원답지 않은 논평을 했다”며 “논리가 부족할 때 가장 쉽게 쓰는 공격기술이 빠진 것 같다. 박 의원이 그런 기술을 쓰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b>건 물</b>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b>건 물</b>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b>의료시설</b>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b>의료시설</b>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b>공 장</b>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